

교원평가 학부모·교사 모두 “yes”

돌보는 기쁨, 교육만족도 쑥!

학부모 86%·교사 69% 찬성...교과부, 전면 시행 앞두고 설문조사 결과 발표

경남교육청, 농산어촌 연중돌봄학교 36개교에 33억원 지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올해부터 전면시행되는 교원능력개발평가제(이하 교원평가제)에 대한 16개 시·도별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이번 조사는 지난 해 12월 8일부터 14일까지 학부모 2,600명, 교사 2,600명 등 모두 5,2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교원평가제 도입과 관련된 시·도별 여론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교원평가제는 전면시행을 위한 관련 법률안(초·중등교육법 개정법률안)의 국회 처리가 3년째 지연되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 해 7월 안 장관이 올해 이 제도를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히면서 교육계 안팎에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이번 조사는 제도 전면시행을 앞두고 시·도별 여론수렴을 위해 실시됐으며 전면 시행을 앞두고 실시된 시·도별 첫 조사라는 점, 제도 시행을 앞두고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된 조사라는 점, 조사 대상이 교원과 학부모 5천여명에 이르는 광범위한 조사라는 점 등에 있어 더욱 관심을 모았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학부모의 86.4%, 교사의 69.2%(교장·교감 87.2%, 일반교사 64.4%)가 평가제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 지난 해 3월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보다 찬성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학부모의 찬성비율은 10.1%, 교사의 찬성비율은 6.2% 늘었다. 학부모 찬성비율이 높은 시·도는 전남(91.8%), 충북(90.5%), 인천(89.9%)의 순이었고 강원(80.0%), 충남(81.6%), 대전(82.6%)은 찬성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교사 찬성비율이 높은 시·도는 부산(75.5%), 울산(75.3%), 경북(73.1%) 등이었고 전남(58.7%), 전북(59.0%), 광주(63.1%) 등은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았다.

전남의 경우 학부모와 교사 간 평가제 도입에 대한 견해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교원평가제 실시에 따른 교육만족도 제고 효과에 대해서는 학부모의 85.6%, 교사의 64.7%(교장·교감 85.6%, 일반교사 59.2%)가 ‘효과있을 것’으로 응

답해, 교원평가제의 실시가 학생·학부모의 학교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답했다.

학부모와 교사간 찬반차이가 상대적으로 큰 조사항목을 살펴보면 올해 평가제를 전면 시행하겠다는 안 장관 발표에 대한 의견은 학부모의 경우 77.0%가 찬성한 반면 교사는 40.1%만이 찬성에 차이를 보였으며, 관련 법률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는 경우 시·도별로 시행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학부모와 교사의 찬성비율이 각각 76.3%와 41.3%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또 평가결과를 인사·보수·연수

기회 부여 등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학부모의 찬성비율이 각각 79.3%, 70.2%, 72.2%로 나타난 반면 교사의 찬성비율은 각각 30.2%, 33.2%, 45.1%로 나타나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교원평가제 시행에 따른 사교육비 경감 효과에 대해서는 학부모의 55.1%가 ‘효과있을 것’으로 응답한 반면, 교원의 경우는 21.6%에 그쳐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이번 조사 결과에서 특이한 점은 조사대상 중 그동안 시범운영을 통해 교원평가제를 먼저 경험한 학교의 학부모와 교사의 경우 찬성비율이 학부모 88.5%, 교사

76.6%로 나타나 제도를 경험하지 않은 학부모(83.6%)와 교사(64.7%)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평가제 실시가 학부모와 학생의 학교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에 대해서도 이미 제도를 경험한 학부모와 교사의 찬성비율(각각 86.6%, 71.2%)이 제도를 경험하지 않은 학부모와 교사의 찬성비율(84.2%, 60.8%)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교과부는 올해 교원평가제의 시·도교육청 자율시행 방안 등의 논의를 위한 정책자문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을 밝혔다.

안철수 기자 yws@eduyonhap.com



‘시의 창작과 감상’의 시간

부산광역시교육연수원, 황지우 시인 초청

부산광역시교육연수원(원장 공재동)에서는 지난 12월 31일 황지우 시인을 초청해 ‘시의 창작과 감상’에 대한 생각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릴케의 시에 반해 시를 쓰기 시작한 시절부터 시작해 연수생들이 학교로 돌아가 ‘시를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 것인가?’에 이르는 시인의 강의는 교사들의 얼굴에 웃음을 떠나지 않게 만들었다.

특히 황지우 시인은 “교사는 참 매력 있는 직업이다. 사람을 바꾸는 것, 학생들이 교사가 가르치는 방향으로 서서히 발전하는 것을 볼 때 희열을 느끼게 된다. 중학교 시절에 학생들의 감수성을

키우고, 문체와 아무 상관없는 ‘어려운 책’ 읽기와 ‘잡담’이 생기면 ‘메모’하는 습관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난치듯 글을 쓸 때 좋은 글이 나온다.”며 중·고교 시절 감수성 교육의 중요성을 힘주어 말했다.

강의에 참가한 한 교사는 “황지우 선생님의 시는 참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은유는 무엇이고 도 바랄 수 없는 시의 특권’으로 은유의 연습을 단련해야 한다.’는 말씀을 듣고 나니 선생님의 시를 어렵것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시인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시’ 교육 방향에 대해 고심해 보게 됐다.”고 말했다.

친환경 교육시설에 120억 투자

충남지역 6개 노후 초·중·고에 친환경 ‘그린스쿨’ 조성

충청남도교육청은 친환경기법을 적용한 그린스쿨사업에 2009년 6개교 137억여원을 투자한데 이어 올해에는 초·중·고등학교 총 6교를 선정하고, 2010년말까지 120억원을 투자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초 4교, 중 2교, 총 6교에 137억여원을 들여 태양광 발전 설비, 태양광 가로등 설치, LED 절전조명 및 천정텍스 전면 교체, 생태연못 조성 등 내, 외부 환경을 친환경 시설로 변모시켜 쾌적한 학습공간과 친환경 교육의 장이 만들어졌다.

올해에는 금산중앙초, 청양 정산초, 태안초, 당진 송악초, 홍성 중학교, 충남해양과학고 총 6개교에 각 15억~20억원이 투입돼 학교별로 4월말까지 설계역역을 완료하고 10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그린스쿨사업은 학교 내·외관을 현대적인 모습으로 바꿔 에너지 절약은 물론 생태연못, 태양열 가로등, 녹지공간, 자전거 주차대 등 친환경 외부공간 조성과 친환경 페인트, 무색면천정텍스, 공기순환장치 설치 등의 친환경 실내공간 조성 등 학교 전체를 친환경 교육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문화·체험 활동 △심리·정서 발달 △기타 지원 영역 활동 등이 다.

돌봄학교 사업비에 대한 영역별 투자 내용을 살펴보면 학습영역이 39.26%로 가장 높고 문화·체험 영역 27.66%, 기초안정망 15.84%, 지원 및 기타 8.83%, 사회성 함양 5.56%, 심리·정서 발달 2.76% 등이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돌봄학교 교육활동으로 인근지역이나 도시에서 전학을 오는 학생들도 있는 것으로 파악돼 학생은 물론 학부모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사업지역 및 학교는 의령군(부림초, 신반중), 함안군(함안초, 산인초, 유원초, 월촌초, 법수초, 함성중), 창녕군(계창초, 영산중), 고성군(거류 초, 동광초, 방산초, 삼산초, 고성동중), 남해군(남명초, 성명초, 해성중),

하동군(목계초, 적량초, 양보초, 양보중), 산청군(덕산초, 신천초, 덕 산중, 신등중), 함양군(안의초, 안의중), 거창군(가조초, 가조중), 함천군(가산초, 송산초, 해인초, 해인중) 등 10개 군지역이다.

도교육청은 사업 2차년도인 올해에는 전원학교로 선정된 함천지역 가산초, 해인중학교를 연중돌봄학교에서 제외하고 대신 같은 지역인 대병초, 아로초, 삼가중, 쌍백중학교를 추가 지정해 모두 36개교(초등 24개교, 중등 12개교)에 대해 33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교육만족도 조사대상을 학부모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연중돌봄학교가 도·농간 교육격차를 줄이고 연중돌봄기능으로 다시 찾아오는 학교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개신

특수교육자료 전국 보급

충남교육청은 도내 각급 학교의 교직원과 전국의 시·도 교육청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 장학자료 ‘비움 그리고 채움 - 편견은 비우고 사랑은 채우고’를 제작·보급했다.

이번에 보급한 특수교육 장학자료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된 장애유형에 따라 각 장애영역별 정의와 특성, 장애인 먼저실천운동 100가지 중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장애인에 대한 예절을 현장교사들이 장애이해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본사 사령

호남취재본부 기자 전완승

2010년 1월 13일

교육연합신문

기사제보: news@eduyonhap.com

발행인/편집인 한승균

우405-835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1135-1 205호
구독문의/대표번호 (업무국) 032-433-1633 (편집국) 032-433-4633
(광고국) 032-433-0633 FAX 032-433-5633
포천지사 031-542-8353 호남본부 062-654-1633

구독료: 한달 10,000원

2009년 1월 22일 등록번호 인친다06002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산부지 요리전문점 낙지세상

한번 맛보면 잊을 수 없는 매콤한 맛!
맛과 향을 만족 시켜주는 - 낙지세상

단체예약환영

계남고가 사거리

프리미엄 시네마	GS백화점
낙지세상	맥도널드
강릉점	공영주차장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42-16
대표전화 : (032)328-9090 핸드폰 : 019-209-9305

송월 SW 타일 관측물백화점

행사준비의 모든 것!!

지회 관측물백화점 매장 방문시 작업경정 및 디자인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 구매시-제공받지 못하는 다양한 종류의 샘플을 직접보시고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 크리스탈 상패 공장직영 ◆

인쇄부	판독부	시상부
전단 명다 빌내 자식스티커 메뉴판	지함 라블 머프 인쇄 스티커 판	상패 명상 트로 현수 유포 실사

대표 김기철

공설운동장정문에서 송의로터리방향으로 중간지점
T. (032) 882-5114
http://hangsal14.co.kr
"네이버 검색창에서 "행사14"를 치세요"

사무공간의 새로운 변신
행복한 꿈을 이루는 공간 아모스

cmos

정부 조달물자(OA행정용품시스템)
공공체·정부투자기관·학교·공공기관·기업

송월의 사무가구
cmos (주) 아모스아인스가구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35번지
대표전화 : (032)563-2700 | 팩스 : (032)563-5291